제2020-37호 참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담당: 민주시민교육부 박은학

미 원 통 신

배움을 즐기는 어린이
서로 어울리는 어린이
문화로 공감하는 어린이

477-853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20-11 ☎ 교무실 584-7708, 행정실 584-2953, FAX 584-7316

아동 실종·유괴 예방교육 가정통신문

안녕하십니까? 항상 학교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아동과 관련된 납치, 유괴, 실종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,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.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(아동복지법 제31조)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<아동 실종·유괴예방교육>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·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, 실종예방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(www.missingchild.or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아동 실종 · 유괴 예방 수칙>

1. 부모님, 선생님과 함께 약속한 길로만 다녀요.

- 등 · 하굣길에 있는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고, 통학 시 미리 약속한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정해주세요.

2. 등 · 하굣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.

- 등 · 하굣길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.

3. 이름과 전화번호를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.

-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이름과 주소, 전화번호 등 본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.

4.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요.

- 정상적인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주고,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.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.

5.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.

- 위험한 상황에서는 '아동안전지킴이집' 스티커가 부착된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.

2020년 4월 22일

미원초등학교장 김 명 희

<아동권리보장원> 실종·유괴 예방 요령

<부모님 꼭 알아두세요!>

① 아이의 지문 등 사전등록을 미리 등록 하세요.
- 아이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신원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실종예방제도입니다.
- 방법은 경찰청 안전드림, 안전드림 앱, 또는 경찰관서 방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.

②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.
※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: 혼자 두지 마세요. / 굶기지 마세요. / 때리지 마세요.

③ 외출 시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.
- 특히, 가까운 백화점·슈퍼·시장·쇼핑몰·영화관·공원·공중화장실 등에서 주의하세요.

④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.
-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.

⑤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.
- 자녀의 키, 몸무게, 생년월일, 신체특징,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⑥ 자녀의 하루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.
- 외출할 때에는 누구와 가는지, 언제 돌아올 것인지, 어디로 가는지 등을 물어보고 시간 약속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.
- 외출 시 자녀의 착의 사항을 기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.

⑦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을 찍어두세요.
- 아이들은 특히 성장이 빠르므로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아동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최소 6개월 단위로 미리 찍어두고 소지합니다.

<아이에게 이것만큼은 꼭!>

① 아이에게 이름·나이·주소·전화번호·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.
-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당황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아주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연습시켜야 합니다. 아이와 함께 실종아동 발생상황을 연출해 보고 함께 연극(역할극 등)을 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
- 만약 아이가 전화할 수 있다면, 당황하지 말고 근처 공중전화나 가게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, 국번없이 182(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) 혹은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칩니다.

②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 가는지 꼭 이야기하도록 가르치세요.
-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하고,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들입니다.

③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세요.
- 유괴범은 낯선 사람을 포함하여 아이들과 안면이 있거나 심지어 부모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

※ 납치범들이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차량 등에 납치하는 것에 유의합니다.

④ 만약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오면 "쉿!"하고 없는 척을 하라고 가르치세요.
-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⑤ 만약 길을 잃었거나 헤어질 때 대처할 수 있도록 '미아예방 3단계'를 가르치세요.
- 1단계: **멈추기**(제자리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게 합니다.)
- 2단계: **생각하기**(자신의 이름과 부모님의 연락처, 주소 등을 생각하며 기다립니다.)
- 3단계: **도와주세요**(아이와 함께 있는 아주머니가 주변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합니다. 또한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건물 안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구하도록 교육합니다.)